



1960년 2월 28일, "학원의 자유보장"을 외치며 시위에 들어간 고교생들

사진제공 3 · 15의거기념사업회

1960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런데 대구시내의 고등학생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교해야 했다. 이날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를 하게 되어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민주당 집회에 민중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억지로 등교시켰다.2월 28일 등교 조치에 항거한 경북고생 800여 명이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별들아" "학원의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구 시내 중심가로 쏟아져 나왔다. 뒤이어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대 사대부고 학생들이 데모를 감행했다. 대구 시내 1,200명의 고등학생들이 불법선거에 항거하는 봉화를 든 것이다.....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재에 맞서 벌인 최초의 반정부시위였다. (『한국민주화운동사1』 104쪽)